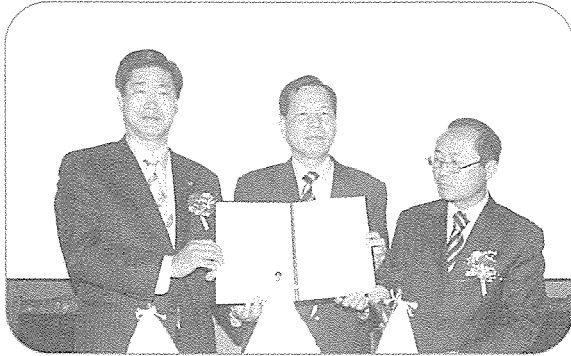


【대한통운,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계약 체결】



대한통운(대표 이국동, www.korex.co.kr)은 지난 3월 23일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과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4개 선석 전용사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STX PAN OCEAN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난 2월 컨공단의 광양항 3단계 1차 운영사 공모에 입찰하여 선정되었으며, 입찰 주간사인 대한통운이 공모 규정에 의거해 23일 광양항 홍보관에서 조인식을 갖고 컨공단과 부두 전용사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

부두 운영사는 향후 30년간 선박의 이/접안, 컨테이너의 하역, 이송, 장치 및 인수도 등 부두운영 전반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은 “기 운영하고 있는 1개 선석으로는 증가하는 계약 선사 물량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나 광양항에서 신규 4개 선석을 확보하게 되어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규모의 터미널 운영사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면 연 2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1천억 원의 매출과 8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 관계자는 “올해 1월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라인이 P&O Nedlloyd 합병을 통해 물량이 증가했고, 세계 유수의 선사들이 광양항 기항을 검토하고 있어 4개 선석을 운영하는데 물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에 위치한 배후물류단지 내에 2만 6천 평에 이르는 부지를 확보해둔 상태이며, 이를 컨테이너 부두와 연계하면 외국화물에 대한 보관, 라벨링, 포장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물류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는 총 5만톤급 4개 선석으로 선석 길이가 1,400m, 부두 면적이 25만 평에 연간 120만TEU(20ft

컨테이너 1개를 세는 단위)이상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총 사업비는 3,770억 원 규모로 컨공단이 지난 9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올 연말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식 개장은 컨테이너 크레인 8기 등 하역장비가 갖춰지는 내년 4월 중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의 종합물류기업으로 특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2005년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동안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올해의 부두’에 대한통운 감만 컨테이너 터미널이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통운은 부산신항 2-1, 2-2 단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허치슨이나 D.P.월드 등 외국계 터미널 운영사가 39%의 선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하역업체도 튼튼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국내항만 100년 역사를 같이해온 하역업체의 터미널 운영 노하우 전수와 동북아 중심 물류국가의 종합물류기업 육성 차원에서 부산신항 부두운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울산 신항의 선석을 확보한데 이어 인천 평택항 부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지난 3월15일,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체를 위한 물류공동화와 품질물류서비스 구현을 통한 고객만족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이번 상공의날 기념식은 경제4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성장 발전에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상공인과 관리자 및 사원, 주한 외국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행사로,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정부기념일이다.

이날 총 포상인원은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195명으로 정부포상 172명, 경제4단체장 표창 23명이었으며, 모범상공인, 모범관리자 및 사원, 재외 및 교포 상공인, 주한 외국상공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포상이 이루어졌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성장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동반성장형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하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최근의 경기회복 기조를 더욱 확실히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과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하며, 한국의 미래를 지켜줄 새로운 기술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용갑 국회 산지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신호 전경련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국내외 상공인 1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부대행사로 국무총리를 주빈으로 하여 수상자 및 재외·교포 상공인을 위한 오찬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솔CSN 직원들의 특별한 봄나들이】

지난 4월 10일, 목련꽃이 탐스럽게 필 무렵 한솔CSN 수도권 지점 직원들의 특별한 봄 나들이가 있었다. 그 특별한 봄나들이는 다음 아너 "천애원" 식구들을 방문하는 일.

천애원은 중증장애인 50명이 모여 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45년 9월 설립하여 천애재활원, 늘 편안집 등 중증장애인의 요양 및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한솔CSN 직원들은 최근 불어 닳힌 황사로 얼룩진 재활원 시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웃음

을 잃지 않은 장애우들과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회사 영업팀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달 적립한 기부금으로 천애재활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후원하기도 하였다.

한솔CSN 김길화 주임은 "5시간내내 청소를 마치고 나니 몸은 천근 만근이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느낌보다 그분들의 따스함을 배우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한솔CSN은 정기적인 장애우 시설 방문,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야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 열어】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2월 28일 포장인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호텔 궁전홀에서 제16회 정기총회 및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한해 동안 포장산업 발전에 공헌한 각 분야별 신청자 중 한용교포장인상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포상하는 상이다.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는 (주)유니크바이오택 김수일 부사장이 연구개발부문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수출진흥 부문에 (주)보성인더스트리 무역부 이동형 이사, 생산·품질관리 부문에 (주)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정해군 부장, 영업부문 울촌화학(주) 마케팅 관리실 최무상 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강동호,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최우석, 신성대학 포장공학1년 이준태,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송용국, 순천침암대학 포장학과1년 최준영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유관단체 관련인사,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및 가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셱커코리아, 울산 사무소 공식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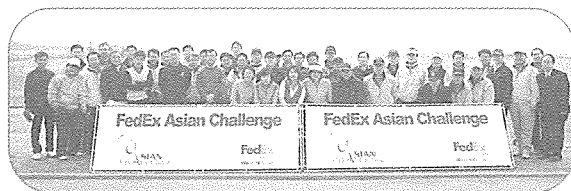


셱커코리아(대표: 마틴 봉가드)울산 사무소가 경동 도시가스의 자회사인 경동 C&L과 업무제휴를 통해 지난 4월 11일에 공식 오픈식을 가졌다.

마틴 봉가드 셱커코리아 사장은 이날 Opening Speech를 통하여 자동차, 화학, 조선 산업 등의 중심지인 울산에 사무소를 개장한 것은 셱커코리아의 새로운 도전이며, 울산시장에서의 셱커의 통합 물류 service는 고객들에 큰 이득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셱커코리아 울산사무소 오픈 행사는 마틴봉가드 사장과 경동의 조봉구 사장 등 100여명의 고객과 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으며, 사업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는 opening 고사도 지냈다.

【FedEx, 우수 고객 초청 골프 라운딩】



FedEx 는 지난 4월 7일, 고객사은행사의 일환으로 우수 고객을 초청해 인천공항 인근의 SKY 72 골프 클럽에서 골프 라운딩 행사(FedEx Asian Challenge)를 가졌다. 총 36명의 고객이 참석한 이번 라운딩에는 FedEx의 마사미찌 우지이에 북태평양 사장을 포함한 12명의 FedEx 임원도 함께 플레이 하였으며 각 조당 FedEx 임원 1인과 고객 3인으로 짜인 12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edEx 북태평양 총괄 마사미찌 우지이에 사장은 "이번 행사는 FedEx의 임직원과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FedEx 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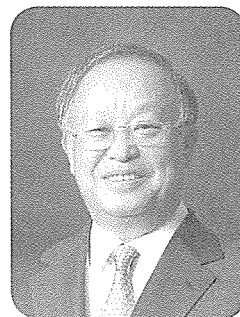
【SAP코리아, mySAP ERP 2005 업그레이드전문가교육행사개최】

SAP 코리아(대표이사 한의녕)는 지난 4월 6일 삼성동 코엑스 정보고홀에서 'mySAP ERP 2005 업그레이드전문가교육' 제하의 교육행사를 개최하였다.

SAP코리아가 자사의 기존 ERP고객 및 파트너사를 위해 무상으로 개최한 이번행사에서는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방법론 및 모듈별 전문가교육을 비롯한 SAP의 차세대 기술환경 등이 소개되었으며, 약 800명의 고객 및 파트너가 참석하였다.

SAP코리아의 한의녕 사장은 "SAP 솔루션은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IT 테크놀로지발전이라는 큰 두요인에 의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상의 비즈니스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본 행사는 모든 SAP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최상의 비즈니스가치를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22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의원총회에서 손경식(孫京植) 현 회장을 제19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지난달 23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손경식 회장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제19대 의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문**